신한 톡톡 189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16
12

Globalization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의 힘!

Issue 1 - 탈분단경계연구소 컨퍼런스
Issue 2 - 제2회 신한류 모델 콘테스트
Issue 3 - 제2회 신한류 스트릿 댄스 콘테스트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신한학술제
·양주시장 인터뷰
·석학 신한인
·김영철 특강

스튜던트 파워
동아리 연합공연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톡톡'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김병옥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Tel. 031 870 3266
• **발행일** 2016.12.30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김민지 기자
• **디자인·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2 325 3405 • **정가 8,000원**

Contents

01_US.KOREA.SOL.1010.599.GX
02_신한 센세이션
04_통일을 준비하는 대학
06_탈분단경계연구소 컨퍼런스
12_제2회 신한류 모델 콘테스트
18_제2회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22_SHINHAN University Vision
24_창업경진대회 시상식
28_신한 학술제
32_Super-Versity
34_양주시장 인터뷰
38_석학 신한인
40_개그맨 김영철 특강
44_스튜던트파워
46_공연동아리 연합공연
48_이모저모
56_대학발전기금
58_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

신한, The 쎈세이션!
신교육 패러다임 융·복합 교육의 중심에 섰다!

Best University

· 전임교원 확보율 전국 평균 2배, 교수 1인당 학생 수 전국 최저

· 신입생 중도 탈락률 전국 최저 수준

· 취업위주 현장중심 교육 새로운 취업 명문으로 떠 올라

Global University

· 탈분단 '경계' 연구로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 만들고 있다

· 몽골대학 국제협력센터 개소… 신한대 '북방전략' 확대

Student's Power

· 디자인전공 학생들 수상의 기쁨을 맛보다

· 'Alone(얼른) 식사하세요!' 1인 창업 아이디어 인기

· 신한대 어학당 몽골인 유학생 '소라'를 만나다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 신한대학교

2014년, 4년제 대학으로서의 새 출발을 알렸던 신한대학교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신한대학교만이 가진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다. 신한대학교는 경기북부지역과 상당히 밀접해 있는 위치를 이용하여 일찍이 통일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부터 시행해 온 ‘국제학술대회’부터 ‘탈분단경계연구소’까지 남북관계를 다룬 각종 연구와 토론을 실시하면서 신한대학교는 타 대학과 비교되는 독보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나 이 모든 것을 신한대학교가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신한대학교가 독자적으로 해내면서 비로소 통일의 메카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와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군사적 안보와 분단의 고통이라는 상반되는 사안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다른 인식을 갖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통일은 단순한 이해관계만으로 무시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국가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하지만 그 길이 험난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는 주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분단 71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의 굳건한 경계는 더 많은 이들의 연구와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선두주자의 중심에 서 있는 신한대학교를 기점으로, 평화가 우선이 된 통일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본다.

〈권혜미 기자〉

Border lands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in Korea and Beyond

경계와 지역에서 전환적 평화통일 담론 모색하다

신한대 주최
'한반도 평화공존과 지역의 역할'
국제학술대회 성황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주관
국내외 석학 대거 참가 열띤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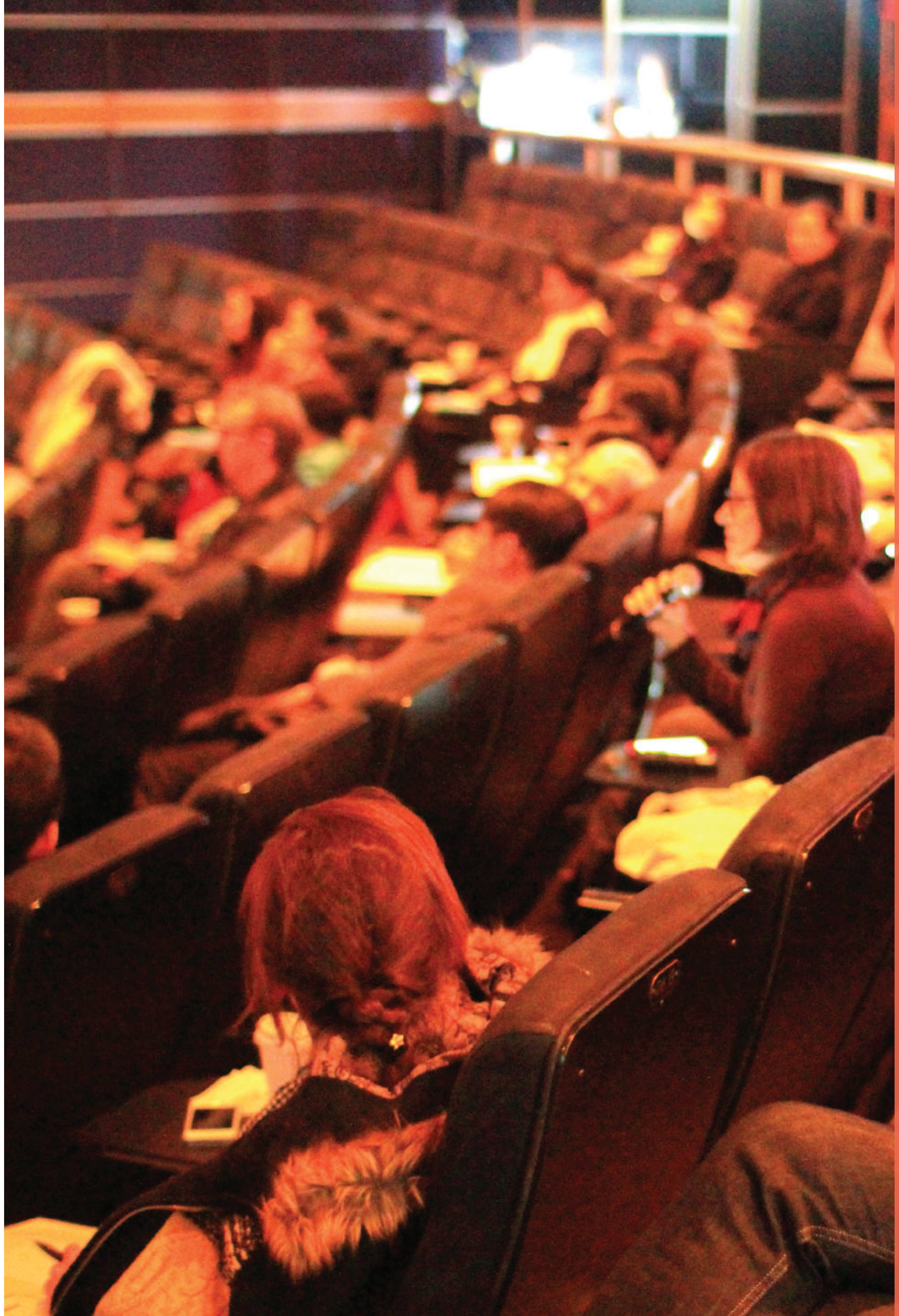
신한대학교는 11월 10일과 11일에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지역의 역할: 경기도와 세계의 접경지역'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신한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국제학술대회이다. 올해의 학술대회는 '경계'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분단 모순을 극복하고 전환적인 통일 담론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아직 국내 학계에서 경계연구가 충분히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계 지역에 위치한 경기도와 신한대학교가 경계를 주제로 연속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아트선재센터 리얼디엠지 프로젝트, 아일랜드의 트리니티칼리지 평화학대학원,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교 몽골·중앙아시아 연구소가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회의를 기획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분과학문적 접근방식으로 경계연구에 천착해왔던 국내외 학술·문화 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 국제학술대회는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이틀에 걸쳐 다양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학술회의는 케임브리지대학교 몽골·중아아시아 연구소(이하 MIASU)의 초대 소장인 케롤라인 험프리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험프리 교수는 이 날, "상호공존, 그리고 경계 넘기의 중재자들"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남북한을 가르는 경계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제안했다. 험프리 교수는 한반도 분단 체제의 위협성은 군사안보 장치와 논리에 의해 증폭되는 일종의 정치적 상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는 일반인들 사이의 면대면 접촉과 대화만이 분단을 위협이 아닌 상호공존의 조건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블레이커의 연구와 남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에 의해 초국가적으로 통일되었다는 박현옥의 연구를 인용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을 가르는 경계의 완고성은 자본을 매개로 하는 일반인들의 교류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으며, 상호공존의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험프리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다양한 교류와 접촉에 관여하는 '중재자'라는 존재이다.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참고하여 험프리 교수는 중재자가 행위 당사자들의 차이를 화해로 이끄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재를 통해 행위자들의 내재적 성격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1부에서는 "분단과 경계의 비판지리학"이라는 주제로 니콜라이 토이플 교수(독일 바이로이트대), 박배균 교수(서울대), 지상현 교수(경희대)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들은 각각 독일-폴란드의 국경, 대만의 금문도/한국의 서해5도, 개성공단/나들섬/DMZ 생태평화공원 등을 사례로 하여, 국경과 영토성에 대한 비판지리학적 논의를 펼쳤다. 박배균 교수는 '네트워크적 영역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경과 접경지역을 규정하는 원리는 안보와 장벽이라는 '영토화'의 논리가 한 축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영토의 배타성으로 규제되지 않는 이동과 연결성에 바탕을 둔 '탈영토화'의 논리가 동시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박배균 교수는 금문도는 1990년대 탈냉전적 지정학적 조건이 형성되며 탈군사화 조치와 '소삼통' 정책 등을 통해 초지역적인 이동과 흐름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공간으로 변모했던 반면에, 한국의 서해5도의 경우 지역 내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과 완고한 반공 이념으로 인하여 여전히 영토화의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이플 교수는 독일과 폴란드 국경을 사례로 하여, 접경지대에 위치한 시민사회가 역사서술과 문화적 기억의 교환과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경 간 협업을 실천해 왔으며, 그 결과 극심한 역사적 갈등과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특징지어지던 독일-폴란드 국경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이플 교수는 남북한의 국경은 이념적 차이와 체제적 이질성 등으로 인해 매우 폐쇄적이지만, 접경지역의 시민사회들이 주축이 되어 공통된 문화적 기억을 복원하는 등의 공동의 경험을 축적해 간다면 그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부에서는 "경계의 중층성: 지리적 불가분성과 정치적 불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프랑크 비예 교수(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박현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 나탈리아 뤼조바 교수(러시아 연방극동대)가 발표자로 참여했는데 프랑크 비예 교수는 '샴쌍둥이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해 남북 관계를 설명하여 주목을 끌었다. 비예 교수에게 있어서 남북한은 서로 분리하는 순간 그 독립적 기능이 현저히 감소하는 샴쌍둥이와 같은 존재로서 유기적으로 단일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고 여겼다.

3부는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의 평화학대학원 연구진이 발표자들로 참여하고, 국내 아일랜드 평화협정에 대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반도와 아일랜드섬은 식민지로 있다가 이후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아일랜드섬은 남부가 아일랜드자유국을 수립하고 이후 1949년 영국연방을 탈퇴해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함에 따라 북아일랜드와의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하지만 아일랜드섬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꾸준한 평화과정을 거쳐 1998년 4월 '성금요일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갈등행위자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조건을 제도화하는 데 성공한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미첼 교수(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벨파스트캠퍼스)는 협정 이전에 북아일랜드는 분단체제와 영국식민주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분쟁과 불안이 고착되는 상황이었고, 이는 만성적인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내부적으로는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일종의 숙명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평화에 대한 갈망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불안한 미래의 두려움으로 상쇄되었다는 것이다. 미첼 교수는 협정 이후 권력의 분점과 분쟁 시기의 갈등에 대한 화해와 합의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아일랜드의 평화협정은 분쟁에서 평화로의 제도적 전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가져오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김동진 교수(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는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과정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비교하면서, 한국에서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정책',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남북공동선언 발표 등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남북한 평화 조성의 기대감이 형성되었던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북아일랜드의 평화프로세스는 여전히 진행 중인 반면에 한국은 최근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화조성의 노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김동진 교수에 따르면 하지만 평화조성은 지정학적 상황과 내부의 정치적 논리와 역동 관계 및 지도자들의 전략과 의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의 평화프로세스도 위기에 봉착할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다.

4부는 "경계 위의 예술, 경계를 넘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아트선재센터의 '리얼디엠지프로젝트'전에 출품했던 예술가들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회의 마지막 순서인 **5부는 "접경지역의 역동성과 평화공존: 경기도와 세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접경 지역에서 경계의 일상적인 경험과 담론 형성 및 경계 넘기를 위한 지방 정부와 시민 사회 대응의 구체적 양태들이 논의되었다. 치요 와카바야시 교수(오키나와대, 일본)는 1945년 오키나와 전투로 완전히 파괴되었던 72개의 농촌 공동체 중 하나인 이사하마 마을의 역사를 사료를 토대로 재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와카바야시 교수는 전후 냉전 논리에 의해 이사하마 마을이 미군에 의해 어떻게 점령되고 파괴되었으며, 폭력적인 미군의 점령에 지역 공동체는 어떻게 저항했는가를 서술했다.

서정민 교수에 따르면 고성군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남북한의 대립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인식을 보이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고성군민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정책적 결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중앙정부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설문 결과에서 그 원인을 일부 찾을 수 있다.

김동성 박사(경기연구원)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경기도 지방정부가 수행해왔던 대북지원사업들의 구체적인 사업들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김동성 박사에 따르면 2010년 천안함 피습 침몰과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등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대립과 대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소규모나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이는 정치논리에 의해 남북 중앙 정부 차원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이념 갈등에서 거리를 두고 보다 확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틀간의 회의에는 300여명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및 학생들이 청중으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가체제나 정치권력의 문제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려는 기존의 통일 담론과 접근 방식이 가지는 한계에 대응하여 경계의 확장적이고 생동적인 측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부각시키는 것이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에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했다.

또한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분단 너머의 상태인 탈분단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했다.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기회였던 두 차례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신한대학교가 남북 평화공존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두적인 주자로 나서기를 기대해본다.

<김민지 기자>

스타탄생 요람! Super Rookie
제2회 신한류 슈퍼 루키 모델 콘테스트 성황

대상(大賞)에 중국 남성 루키모델 왕슈오위
금상 윤형남 · 은상 층신이(중국)
동상 이시은, 최수훈

미래의 슈퍼모델을 꿈꾸는 5명의 중국과 한국의 모델 지망생이 모델 예비스타로 탄생했다. 신한대학교는 11월 11일 의정부 캠퍼스 에벤에셀관 컨벤션홀 특설무대에서 국내·외 예선을 통과한 여성 20명, 남성 15명 등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신한류 슈퍼루키모델 콘테스트 결선대회를 열어 5명의 모델 루키(유망신인)를 배출했다. 결선무대를 수놓은 참가자들은 147명이 참가한 국내와 중국예선의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이들로 세련된 워킹과 매너로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그 결과,

왕슈오위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신한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했으며 윤형남은 금상, 층신이는 은상, 이시은과 최수훈은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입상자 전원에게는 신한대 입학 시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신한대 디자인학부 교수인 패션디자이너 김서룡 옴므 브로셔 모델기회가 부여된다.

Super Rookie

모델 김태연, 김진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선무대에서는 보이그룹 D.I.P 공연,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결선 진출팀 미스틱본즈(신한대 공연예술학과)의 댄스 공연, 김서룡 옴므 축하패션쇼가 함께 열려 스타탄생의 열기를 북돋우었다. 결선 심사는 김서룡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를 비롯해 김장환 모델에이전시 대표, 임한수 패션포토그래퍼, 모델 이현욱 등이 맡았다.

이번 콘테스트는 의정부시, 天津工業大學(천진공업대학), 신한류 뮤직페스티벌 준비위원회,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준비위원회 공연예술학과 K-pop전공,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이 후원했으며 kimseoryong homme, plasma sphere, bravo studio, 크리스찬쇼보 노원점, 의정부경전철(주), 도서출판회소, 동화힐링캠프가 협찬했다.

신한대학교는 2014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공연예술학과를 중심으로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신한류 뮤직페스티벌을 주최하고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K-POP의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한 데 이어 이번에 국제 규모의 모델콘테스트까지 창설해 신한류 국제대학의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는 김서룡 패션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신한류 문화의 또 다른 지평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예지 기자〉

대상 : 왕슈오위 (WANG SHUOYU · 중국)
금상 : 윤형남 (신한대 공연예술학과)
은상 : 층신이 (CHENG XINYI · 중국)
동상 : 이시은 · 최수훈 (한림연예예술고)

신한류 2016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Street Dance Contest
ShinHanRyu

신한대학교는 10월 28일 의정부 캠퍼스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에서 최고의 춤꾼 발굴을 위한 '제2회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스트릿댄스의 영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한류 문화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하면서 '공연예술 스타 양성의 메카'로 한층 더 다가서기 위해 열렸다.

신한대, 스트릿댄스로 K-POP 한류 영역 확대

Street Dance Contest

스릿댄스 콘테스트의 참가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지난 10월 22일 예선을 거쳐 16개의 팀이 결선 진출 자격을 얻었다. 결선에 진출한 팀은 Critical, funkys, The groove, One nation, Nuclears 8, A-list crew, H-waack, MASSA, Reisn over, Mystic vonz, 변화무쌍, Alien, Su wa li zilla, 알펍스 크루, 엔젤라인, Mad sprit 등이다. 16개 팀은 케이팝, 왁킹, 크럼프, 걸스힙합, 비보이&모던, 힙합, 락킹, 팝핑, 비보잉 등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 솜씨로 이우재(FIRE), 함혜림(MMARY), 이병은(BANGSTER), 황광석(ZACK), 박진성(KNUKL) 등 심사위원의 찬사를 받았다.

대상에는 신한대학교 총장상, 금상은 부총장상, 은상은 학생지원처장상, 동상에는 공연예술학과 K-POP 전공 학과장상이 각각 주어졌다. 시상금은 각각 200만원, 80만원, 40만원, 30만원이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신한대 공연예술학과 K-POP전공으로 입학할 경우 장학금 특전이 주어진다. 제2회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결선에서 'ONE NATION'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금상은 'CRITICAL FUNKYS', 은상은 'H-WAACK', 동상은 'LOLS KIDZ'가 각각 차지했다.

지난 5월 의정부시와 함께 제2회 2016 신한류 뮤직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는 신한대는 K-POP 문화의 영역에 스트릿댄스까지 정착시켜 한류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면서 'K-POP 스타 양성의 메카'로 한층 다가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과 개설 3년째를 맞은 공연예술학과를 K-POP 스타 양성의 중심 학과로 육성하고 재학생들의 공연 기획, 행사 진행 등 전공 능력을 높이기 위해 스트릿댄스 콘테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한대 관계자는 "최고의 스트릿댄서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번 콘테스트는 스타탄생의 확실한 등용문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문화 향유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테스트 협찬사는 에너지음료 몬스터, 브라보스튜디오, Rank-2brothers, MSTR, 크루셜이펙트, Inco the deep, 20th century b-boys 등이다.

제2회 Street Dance Contest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결선 성황

최고의 춤꾼 **대상(大賞)**에 ONE NATION

제2회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의 최종 대상 수상자는 혼성 팝핀댄스 그룹 'ONE NATION'(원 네이션)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현재 각종 행사와 게스트쇼로 초청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ONE NATION을 인터뷰했다.

Q. 우승 축하드립니다.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혼성 댄스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ONE NATION' 이라고 합니다. 'ONE NATION'의 뜻은 한 민족의, 한 국가의, 하나의 라는 뜻으로 저희 팀도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창단한지는 이제 일 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창단을 했지만, 잠시 공백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도전했는데 너무 행복한 일이 생겼네요.

Q.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에 지원하신 동기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저희만의 보금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연습실을 대관하며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만의 연습실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상금은 연습실을 얻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Q. 이번 콘테스트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이 퍼포먼스를 하기 전, 많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기존에 다른 대회에서 보여주던 퍼포먼스를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정말 멋있는 퍼포먼스가 탄생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더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댄스팀이 되실 건가요?

얼마전에, 저희 팀이 존경하는 형들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더 성장해서 형들처럼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희의 꿈은 한국을 대표하는 팝핀 댄스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연습해서 형들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후배 댄서팀이 되고 싶습니다.

Q. 우승소감 좀 알려주세요.

너무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하며 '아, 역시 ONE NATION은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라는 평가를 얻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항상 긍정적으로 재밌게 열심히 준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여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Q. 'ONE NATION'에게 신한류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이란?

다시 시작하는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주춤했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저희 팀이 뭉칠 때 더 강한 시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즐기고,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ONE NATION이 되겠습니다.

<반지민 기자>

Talent Identity

New Start

4S Power

Shinhan University Vision

신한대학교 인재상

-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 양성
- 사랑과 봉사의 사명인
- 지성과 창의의 실용인
- 소통과 공감의 세계인
- 도전과 발전의 학습인

Start New-versity

S _ ShinHan國人을 양성하는 New-versity
T _ 재능(Talent)을 함양하는 New-versity
A _ 행정(Administration)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New-versity
R _ 지역(Region)발전에 기여하는 New-versity
T _ 내일(Tomorrow)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New-versity

신한대학교의 4S 파워

- **Spirit** : 기독교 정신의 섬김을 통한 영성교육
- **Service** :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나눔교육
- **Synergy** : 통합과 융합의 새로운 창조교육
- **Specialization** : 특성화와 차별화된 전문교육

2016학년도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이 12월 7일 제1캠퍼스 본관 3층에서 열렸다. 신한대학교 인재개발처 취창업지원센터는 경진대회 참가 16팀(명)에 대한 심사 결과 대상에 **이름채(김현우 · 에너지환경공학과)**를 선정하는 등 입상자 16팀 (명)을 뽑아 이날 시상했다.

영예의 대상에 [이름채彩]

금상_ 충의치연구회
은상_ 시즐러출판사, 나우시트
동상_ 향의민족, Mix Master, Cyber Lab Program

취창업지원센터, 2016학년도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입상자들에게는 대상 100만 원 등 모두 46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다. 입상자들은 변리사, 고용노동부 주무관, 시중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 창업특강 참석 여부, 창업자 보유역량, 타당성, 창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선정됐다.

김병옥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신한대학교는 효율적인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금년에 인재개발처를 발족하고, 취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업률증진과 창업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매년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창업열기를 격려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의 창업정신을 더욱 발전시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는 큰 인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수상 아이템 및 아이디어

번호	팀명	학과명	학년	성명	장학금액(원)	입상내역
1	이름채	에너지환경공학과	3	김현우	1,000,000	대상
2	충의치연구회	치기공학과	3	강현중 등 16명	800,000	금상
3	시즐러출판사	언론학과	3	윤기남 등 3명	500,000	은상
4	나우시트	글로벌통상경영학과	2	김혁준 등 6명	500,000	은상
5	향의 민족	글로벌통상경영학과	2	김종성 등 2명	300,000	동상
6	Mix Master	글로벌관광경영학과	2	최석우	300,000	동상
7	Cyber Lab Program	임상병리학과	3	김강산 등 12명	300,000	동상
8	S.H.E.	전자공학과	3	안성훈 등 6명	100,000	장려상
9	Vortal site	호텔조리전공	3	장인호 등 4명	100,000	장려상
10	Among-Uni	글로벌통상경영학과	3	곽민진 등 4명	100,000	장려상
11	MM	언론학과	2	윤영수 등 4명	100,000	장려상
12	창작세계수	언론학과	2	정현수 등 2명	100,000	장려상
13	CPR	방사선학과	2	노은비 등 5명	100,000	장려상
14	BS	치기공학과	3	유경민 등 5명	100,000	장려상
15	홍지인	유아교육학과	3	홍지인	100,000	장려상
16	SH Tune	자동차공학과	2	김명호	100,000	장려상
계					4,600,000	

이름채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를 기계가 대신하려는 시대에 예술과 경영의 관계를 중간에서 매니징을 하여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총의치연구회

기존의 왁스림만 가지고 바이트를 채득 했을 때보다 무치악 전치 배열 가이드를 이용해서 바이트를 채득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 협조도 상승 및 치과와 환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시즐러 출판사

자가 플랫폼으로 구성된 출판사 형식으로 작가 커뮤니티 사이트 생성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판 스터디 모임을 운영한다.

나우시트

당의 POS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식당의 공석을 확인하는 용도로서 직접 움직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소비자에게는 시간적·공간적 편의가 제공되고, 업주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향의 민족

다양한 향수를 적정한 통에 담아 정기적으로 배달을 도와주는 창업 아이디어이다. 간단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옷차림과 연령대를 선정하여 소비자들이 접근하지 못한 향을 배달하는 창업 아이디어이다.

Cyber Lab Program

기존의 소변 채취 용기는 일반적인 종이컵이 대부분인데 컵에 소변을 받다 보면 손에 튀거나 불편한 점이 있어서 손잡이를 추가하여 이 점을 보완하고, 손잡이를 속이 빈 원뿔 모양의 관 형태인 원심분리관으로 제작하여 바로 요 침사검사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S.H.E

냉장고 내부를 파티션을 나누어 개인별로 사유화 할 수 있는 냉장고를 만드는 도구. 공용으로 냉장고를 사용하는 고시원, 병원, 회사 탕비실 등에 유용하다.

Vortal site

무점포 형태의 환자식 배달/배송사업. 플래그숍 방식으로 향후 다점포 전개를 목적으로 한다.

Among-Uni

대학교에서 대학생이 자신의 재능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이다.

MM

쉐어하우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월세족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어플이다.

창작세계수

뒤죽박죽 동화책

CPR

방사선 촬영에 알맞게 자동으로 환자의 자세를 조절해주는 테이블이다.

BS

3D Print를 이용한 기공 보철물 제작 아이디어이다.

홍지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인형으로 만들어 동심을 지켜주는 동시에 그림을 인형으로 만들어 창의력 증진과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하나뿐인 인형이라는 점도 아이템의 강점이다.

SH Tune

엔진 튜닝을 통한 연료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 개발 이이템이다.

대상 이름채彩 김/현/우

기계가 사람이 대신하는 시대가 다가오며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글자를 물들인다'는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이다. 창작된 글씨, calligraphy font를 판매하는 것이 아이디어의 핵심이다. 창업아이템은 '서예로 디자인 된 글씨' 이며 마케팅, 행사, 간판, 미술품, 공모전 등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통서예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및 만족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한글, 영문, 한자 등 여러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디자인 후 상대방에게 해당 저작권을 매도 및 양도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로서 미술품을 구매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이점도 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디자인과 창작 아이디어로 시장을 살핀 결과 대학생이기 때문에 한정된 인적자원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겨야 했다"는 김현우 학생은 20대 서예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친여동생 효정 김하현과 캘리그라피 1세대인 미술협회 심사위원 화정 김봉춘 작가와 함께 팀을 이룬 것이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 이랜드계열 folder 신발 플랫폼 회사와 1회성 계약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현재 간판디자인을 주된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간판 디자인 매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무실 근처의 간판디자인 업체 1곳과 협력을 맺고 있으며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캘리그라피 디자이너 2인, 카피라이터 1인, 일러스트 디자이너 1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쌓이면서 현재 브랜딩 작업 중이다. 실제 고객들은 간판 업체들에게 캘리그라피 간판을 원하지만 기존의 업체들은 자체적인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탓에 그만큼 전문적인 외주업체를 필요로 해 전망은 밝은 편이다.

정부 관련 캘리그라피 공모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지명도를 넓히는 중이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sns나 행사 마케팅을 맡아 진행 할 예정이다. 또 저명한 카페나 펍에 무상으로 작품을 전시하며 홍보하는 한편 현재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인근 건물 전체를 디자인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시장의 수요는 매우 크다. 광고대행·매체대행 업체는 총 1,218곳이며 약 7조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고 평균 회사 당 매출액은 50억에 달한다. 하지만 이름채의 경우 일부 마케팅 비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장규모는 1,700억 수준이며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2012년 통계청자료)

캘리그라피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판 계약을 따고 얻는 수익 외의 부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넓히기 위해 손 글씨와 연관성이 있는 티셔츠와 상자 등 디자인 상품을 개발 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각 학과의 **특색**과 **저력**이 돋보였던!

학술제 2016

신한대학교에서 지난 10월 27일에서 28일 이틀 동안 2016학년도 학술제를 진행했다. 재학생들은 각 학과의 전공 분야에 대해 심화된 내용을 다뤘으며, 학과의 더 나은 활동을 강구했다. 또한, 자신이 속한 학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와의 교류를 통하여 연대감을 형성했고 동기들과의 돈독한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활동을 펼친 여러 학과 중 몇 개의 과만 선택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변진영 기자〉

뷰티헬스전공

에벤에셀관 4층에서 이루어진 뷰티헬스학과의 학술제는 뷰티 헬스과만의 특성을 살려 주체됐다. 학문적인 배움 위주인 타과와 달리 네일아트와 피부 관리, 스포츠 마사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뷰티헬스과 학생은 과 특성상 유형의 작품을 전시하기보다는 전공을 통해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학술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을 통해 학습한 것을 활용해 중간고사로 인해 지친 학우들에게 '힐링'을 선물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수습기자〉

언론학과

언론학과 학술제는 10월 28일 금요일 에벤에셀관 연회장에서 진행되었다. 1부는 '신한대는 왜 조용한가?'라는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2부는 '이구동성 멘토멘티'를 진행하여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권혜미 기자〉

치위생학과

치위생학과에서 학술제를 맞아 천연 치약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치약의 합성 성분들로 논란이 많은 시점에서, 건강한 치약을 만들고 올바른 양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천연성분의 가격이 높아 재료비를 충당하느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술제를 준비하면서 다른 과와의 교류가 많아 즐거웠고 건강한 치약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민영 수습기자〉

치기공학과

공학관 2층에서 치기공학과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실제 치아 크기의 모형을 이용한 작품들을 전시해, 사람들에게 치아의 모형과 치아로서의 역할을 알리고자 했다. 치기공학과 학생들은 치아 모형을 하나하나 일일이 조각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뿌듯함에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동아리 외부 부스

현재 운영 중인 동아리와 소모임의 자발적인 참여로 '동아리 외부 부스' 행사가 진행되었다. 총 세 종류의 부스가 진행되었으며, 치약 만들기 실습, 콘텐츠 제작과 사진 보정에 대한 간단한 강의, 학교 실태 설문 조사와 같은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반지민 기자〉

이번 신한대학교 학술제는 지난 해보다 각 학과의 전공 지식에 대한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내년 학술제에도 다른 학과들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길 기대해 본다.

〈변진영 기자〉

21C는 SHINHAN Super-Versity 시대

기술중심 교육 Super-Tec

교양인 양성 Super-Edu

인성중심 교육 Super-Persona

봉사정신 교육 Super-Serve

I N T E R V I E W

감동365 실천,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로 양주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이성호 양주시장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이성호 양주시장은 취임 후 공직자들에게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시민을 바라보며 일하라"고 강조했다. 양주시민을 시정의 가치 중 가장 첫째로 두고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시정을 구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모두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청사의 모습을 개방적으로 바꾸고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주정차 CCTV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대형 관용차 대신 저렴하고 실용적인 관용차를 이용하며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검준산업단지에 경기북부 근로자 건강센터를 유치하고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 기념관을 개관했으며 전국에서 첫 번째로 식용곤충 가공공장을 개장하는 등 양주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편 이성호 양주시장은 오랜 숙원인 전철7호선 조기 착공, 양주역세권 개발, 국지도 39호선 사업의 조기 추진 등 현안 사업들이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함께 세종청사를 방문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남경필 도지사,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과 만나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 세일즈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양주시 공무원들에게도 기반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하는 등 양주를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고 있다.

'감동365', 6대 실천 과제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의미로 양주시의 비전을 '감동양주'로 정하고 민선 6기의 핵심 사업으로 '감동 365'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감동 365'는 2020년 인구 30만의 중견도시로서의 위상에 맞춰 민선 6기의 6대 실천과제를 오로지 양주시민을 위하고,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일을 추진하여, 양주시민 누구나 감동 할 때까지 365일 연중 감동 양주를 실현하겠다는 표현의 약자이다. 공직자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시민은 감동행정에 참여하는 범시민 신천운동인 '감동 365'를 통해 양주의 옛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선6기 임기 중 추진할 6대 실천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민감동', '시민소통', '시정혁신', '공직청렴', '친절나눔', '현장참여' 이렇게 여섯 가지이다. 양주시는 이러한 6대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SNS홍보 매체 활성화, 청렴혁신 추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뷰티체험서비스에 이르기까지 97개의 분야별 세부실천과제를 정해 추진하고 있다. '감동 365 세부실천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양주시는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동시에 인구 30만의 중견도시로서의 위상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Beautiful Change YANGJU

지난 4월 13일 양주시장 재선거에서 양주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이성호 양주시장이 취임 8개월을 맞았다. 양주호 출항 250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양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힘찬 움직임은 쉼 없이 계속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250일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양주시의 향후 비전을 살펴본다.

경기북부 중심도시 양주의 비전

양주의 미래 비전, 경기북부 중심도시 양주를 만들기 위해 양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새롭게 그려질 양주의 미래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첫째, 시정혁신을 통한 시민의 신뢰 회복

양주시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한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변화시켜 양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또 시정혁신 TF팀을 통해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한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인맥이 아닌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며 부정부패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양주를 만들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회천신도시 안에 조성될 첨단산업단지에 단순 노동형이 아닌 우수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기관과 연구소를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과 복지지원을 대폭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축산업은 6차산업 활성화와 로컬푸드시스템 지원, 양주쌀 소비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며 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셋째, 명품 주거환경 조성

명품 교육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지원 예산을 증대하고 장학사업을 확대하며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산학연계 취업 맞춤형 학교 육성 및 우수한 인재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에 힘쓰는 한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보다 나은 보육환경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회관, 종합노인복지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더불어 잘 사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넷째,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구축

전철7호선 연장, 조기 착공과 개통을 위해 신속하고 빈틈없는 행정처리로 준비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착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부권 발전의 기틀이 될 국지도 39호선 확포장사업은 가납~상수구간을 조속히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장흥~광적 구간은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력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철1호선의 배차간격 조정과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새로 유치해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양주 동~서간 도로망 확충과 교외선 재개통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다섯째, 신도시 및 역세권 개발과 균형발전

지난 5월 GB해제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밝혀진 양주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환승주차장을 비롯해 행정지원시설과 업무,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일영도시개발과 장흥촬영장 조성 등 문화관광을 기반으로 장흥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 은현 · 남면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순환형 둘레길 조성 등 감악산 종합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백석신도시, 옥정 · 회천신도시의 개발로 인구 50만, 양주시의 균형발전시대를 열어나간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 이러한 계획들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 취임 250일, 빛나는 결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취임 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쉼 없이 발로 뛰며 양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그 결과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산업통상부 장관상

양주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공공시설물,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분야) 지침을 통해 민간 및 공공부분의 디자인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차별화된 도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산업통상부가 주관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양주시가 2016년 경기도 시 · 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 원과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2016년 경기도 시 · 군 종합평가는 인구수에 따라 총 세 그룹으로 구분해 진행하는데 양주시는 2그룹(20~45만 명 미만)에서도 가장 인구수가 적지만 도 31개 시군에서 4위, 2그룹에서 3위를 차지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행복e음시스템 핵심요원 활동 최우수 지자체

양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 '행복e음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핵심요원 활동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6년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 노력으로 양주시가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개인표창으로는 주택과 김소연 주무관이 행복e음 핵심요원 우수활동 표창자로 선정돼 장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읍면동복지허브화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양주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16 지역 복지사업 평가에서 맞춤형복지서비스기반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다. 복지허브화 사업은 읍 · 면 · 동 맞춤형복지 팀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적제도와 민간복지자원간 연계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복지대상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박은영, 박미소 기자〉

신한대학교,
새롭게 초빙된 석학교수 2인

지난해부터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산학협력교수와 석학교수를 초빙하였다.

새롭게 초빙된 석학교수들은 저마다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이 바라온 깊이 있는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으며, 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석학교수 2인(손경식, 문시영 교수)을 만나보았다.

“가능성은 이루려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도전이 성공할 때 찬란히 빛나게 됩니다.

산학협력중점 **손경식** 교수

손경식 교수는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대진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경기도청, 통일부, 인천시 등에서 근무하며 지역경제와 통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고, 제18대 연천 부군수와 제29대 의정부시 부시장을 역임하며 평생을 공직자로 보냈다.

현재 손경식 교수는 신한대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 소속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재직 중이며, 신한대학교와 경기북부개발연구원 산하 지역사회연구소의 일을 겸하면서 지역에 소재한 주요 기관과 경기연구원 북부센터 등 연구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공직자로서 '공직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작은 업무에 국한되어 있던 경기도 북부 출장소가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경기도 북부청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에 크게 기여했고, 이를 계기로 경기 북부지역만을 전담하는 제2 경찰청과 제2 교육청 등이 연달아 설치되었다. 금년도에는 경기 남부지역과 완전히 독립되어 치안과 생명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경기북부경찰청이 새롭게 탄생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에 특화된 섬유·가구산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 유일의 DMZ 활용과 같은 관광산업 육성, 미군공여지 반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내었다. 이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과 남북교류와 통일기반 조성, 반환 미군공여지 활용 등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도 힘썼다. 손경식 교수가 가진 공직자로서의 곧고 올바른 신념은 이처럼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났다.

손경식 교수는 오랜 기간 경기 북부지역에서 일하며 신한대학교가 그동안 많은 정책 제언과 지역인재 양성을 주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한대학교에서의 뜻 깊은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전했다. 더불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대학의 책무인 만큼, 신한인들이 꿈과 비전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경식 교수는 20대의 청춘을 보내고 있는 신한인들에게서 무한한 가능성과 뜨거운 열정을 보았다며, “신한대학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가능성이란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도전이 성공할 때 찬란히 빛나게 됩니다.”라며 신한인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그는 대학원을 졸업한 뒤 환경계획연구소에 들어가 국토 및 도시환경 연구원을 하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하였고, 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국 사무관, 관광진흥과장, 관광산업과장, 방송기획관, 정책 콘텐츠 부장 등 여러 직위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신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주요 업적으로는 1996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사무관 시절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제1차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문화관광연구원 등과 함께 수립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산업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두 가지를 성장케했다. 이후 2010년 관광진흥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 중 하나였던 부족한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문제를 관광숙박시설확충 특별대책 수립 시행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평소 문화관광콘텐츠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에도 관심이 많았던 문시영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의 관광인 취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경험을 살려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문화콘텐츠연구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관련 기관과의 공동 연구, 세미나, 업무협약 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시영 교수는 스마트시대를 살아가는 신한인에게 “오늘날 우리는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책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정책의 왜곡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그가 이렇게 정책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정책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신념 때문이다. 정책이 비전과 목표설정, 대안탐구, 집행으로 구성되듯이 우리의 삶도 비전(vision)이 뚜렷하게 심상으로 보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 매일 실천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떻게 실천해나갈지가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후회 없는 삶을 살길 바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어 더욱 뜻 깊다.

앞으로도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본받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오소영, 이민영 수습기자>

문시영 교수는 경기대학교에서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도시 및 환경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물로, 현재 신한대학교에서 산학협력중점 교수 겸 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천천히 실천해 나가세요.

산학협력중점 **문시영**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 더올림 프로그램
개그맨 김영철 초청 특강

힘을내요 슈퍼파월!!

"크게 꿈꾸라, 태도를 바꾸라, 일단 시작해!"

신한대학교 인재개발원(원장 변도윤 전 여성부장관) 인재개발처(처장 김성후 교수)의 교수학습개발센터는 11월 15일 1캠퍼스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에서 '더올림 프로그램' 명사특강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더올림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의 학습능력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앞서 김미경, 곽정은에 이어 이번 명사특강 강사로 개그맨 김영철이 초청됐다.

"What do you want to be?(당신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열린 강의에서 김영철은 꿈이 있으세요?(What is your dream?), 크게 꿈꾸세요(Think big), 태도를 바꾸어라(Change your attitude), 일단 시작해(Just start)로 나누어 사례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강연을 펼쳐 특강에 참석한 400여 명의 신한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김영철은 '꿈이 있으세요?' 부분에서 1999년 K본부 개그맨 시험 당시 IMF 때문에 채용인원을 반으로 줄인 상황에서 탁월한 10초 스피치로 개그맨이 된 이야기 등을 사례로 들어 청년들이 꿈을 가져야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그는 또한 '크게 꿈꾸세요'에서 몬트리올 코미디 페스티벌 참가 경험을 설명하면서 "큰 장소에서 역시 큰 꿈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다.

'태도를 바꾸어라'에서 김영철은 미국의 유명한 TV방송진행자 오프라 윈프리가 스승 마야 안젤로우의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예를 들어 태도변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마야 안젤로우는 "무언가가 싫다면 바꿔라.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의 태도를 바꿔라. 불평불만 하지 말고(If you want to something, just change, if you can't, change your attitude. Don't complain.)"라고 말했다.

김영철은 시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뭐가 됐든 그냥 시작해보자. 영어든, 금연이든 다이어트든 일단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이든 늦는 법은 없으며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그가 번역한 '치즈는 어디에?' 내용을 예로 들며 "변화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열정의 산증인인 김영철은 이번 강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더 큰 사회에 나가게 될 학생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꿈을 설정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또한 그의 강의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자기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감을 주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김민지, 오소영 수습기자〉

Student Power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수상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두고 경기도에서 진행되었던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에서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수상했다.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에는 의정부시 신곡노인종합 복지관 마음쉼터, 남양주시 신망애복지재단, 남양주 시니어클럽,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 서로 좋은 밥상, 포천시 노인복지관, 포천노인복지센터 포천맛김사업단, 파주시 사회복지법인 주내 자육원 우리자리 등 약 7개의 기관이 참여했으며 박현철 교수(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의 총괄책임하에 진원재 교수 외 학생 18명(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의 참여연구로 진행되었다.

표창은 경기도 도지사상, 도의회 의장상, 경기 복지 재단상 등 총 3가지의 훈격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도지사상에는 산업디자인 전공 3학년 신수진학생, 도의회 의장상에는 산업디자인전공 3학년 최수지, 이연경, 임은정학생, 경기복지재단상에는 산업디자인전공 3학년 노미선, 강다현, 최유정, 김현지 학생이 수상을 했다. 최종성과보고회는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에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박은영 기자〉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 총괄책임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박현철 교수

>> 참여연구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진원재 교수 외 학생 18명 (장종민, 윤여울, 권예나, 강다현, 노미선, 최동욱, 이연경, 신수진, 임은정, 최수지, 김형희, 장윤정, 최인나, 김혜주, 김민선, 문혜린, 최유정, 김현지)

>> 참여기간

2016년 4월 ~ 2016년 12월

>> 최종성과보고회

2016년 12월 15일(목) 화성라비돌리조트

>> 참여기관

1) 의정부시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마음쉼터
2) 남양주시 사회복지법인 신망애복지재단 신망애이룸터
3) 포천시노인복지관
4) 포천노인복지센터 포천맛김사업단
5) 파주시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우리자리
6)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 서로좋은밥상
7) 남양주시니어클럽

>> 표창대상자

경기도 도지사상 _ 신수진(산업디자인전공 3학년)
도의회 의장상 _ 최수지, 이연경, 임은정(산업디자인전공 3학년)
경기복지재단상 _ 노미선, 강다현, 최유정, 김현지 (산업디자인전공 3학년)

Student Power 2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전공 '2016년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휩쓸다!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전공 3학년 재학생 6명이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16년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에 참가해 (주)크리스패션 JACK&JILL 브랜드 부분에서 1등 브랜드상(대상), 2등 장려상을 수상했다. 1등 대상팀 (한혜지, 정지현, 박서현), 2등 장려상팀 (유정화, 박재영, 김윤지) 6명의 참가자들을 만나보았다.

>>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전공수업을 듣던 중 우연히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공모전에 대해 알게 되어서 조별 과제를 하던 지금의 팀원들과 팀을 꾸려서 '우리의 스타일대로 기획 해보자'며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수많은 팀들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때 당시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기대를 안 하고 수상을 하게 된 것이어서 믿기지가 않아 한동안 벙쪄있다가 정신을 차린 뒤 팀원들끼리 부둥켜 안으면서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힘들게 지냈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저희 모두 성장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 이 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별한 점 또는 자신 있는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저희 팀은 각자 개인의 특성과 개성이 하나로 뭉쳐져서 독특한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하는데 있어서도 몰두하고 깊게 파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점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들만의 특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 대상팀 (한혜지, 정지현, 박서현)

>> 대회에 참가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특별히 느꼈던 점이 있나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모전이다 보니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각자 파트를 나눠 진행하였고 정리가 필요할 때는 다 같이 모여 의견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조절 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마감 날짜가 다가오면서 시간도 부족하고 밤샘이 잦아지다보니 예민해지기도 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여 견뎌냈고 결국엔 저희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교수님들이 모두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전공수업이 실무위주로 되어있고 현재 트렌드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성복 위주의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또 최신식 재봉틀을 각 1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실습실이 갖춰져 있고 교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실습복을 입고 작업하는 환경이 저희 과만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등 장려상팀 (유정화, 박재영, 김윤지)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현재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이어서 아무래도 저희의 첫 컬렉션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맡은 일을 잘 끝마침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패션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는 정말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로를 찾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고, 본인이 이 분야를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비록 힘이 든다 해도 그 과정자체가 '재미있고 의미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패션디자인과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만큼 학생들이 패션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회에 나가 큰 상을 받은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처럼 우리 신한대학교 학생들도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실습위주의 학습방법을 통해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이민영, 김수정 수습기자>

Student Power 3

글로벌관광경영학과 Alone(얼른) 식사하세요! 1인창업 아이디어 우수상 수상

11월 15일, 한국외식산업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가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김송경, 김은선, 이인지, 위승연 학생이 'Alone(얼른) 식사하세요!'라는 1인 식당 창업아이디어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우리는 이들을 만나 이번 대회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한국외식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교외 대회였는데요, 이러한 외부 대회를 알게 된 경로와 참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인 이정원 교수님께서 한국외식산업학회 이사님이셔서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이 대회를 알게 되었어요. 평소 마케팅, 경영 등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수님으로부터 '대학생외식창업'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거다!'싶어 고민의 여지없이 바로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죠.

>> 네 분은 모두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 어떤 동기로 네 분이서 모여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나요?

저희는 이번 학기에 '호텔관광마케팅조사'라는 과목을 함께 듣고 있어요. 함께 같은 수업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전보다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네 명 모두 이번 대회에 대한 참가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같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이 강의의 과제가 직접 창업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운 뒤 조사를 직접 하는 것이었는데요. 원래는 각자 하다가 이번 대회를 통해 함께 합을 맞추다보니 마음이 잘 맞아서 과제까지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이 대회가 저희를 더욱 똘똘 뭉치게 해준 셈이죠.

>> 이번 대회에서 제안한 'Alone(얼른) 식사하세요!'라는 1인 창업 아이디어에서 Alone를 '얼른'으로 한 것이 흥미로운데요, 특별히 얼른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나요?

'Alone(얼른) 식사하세요!'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Alone, 즉 혼자 식사 할 수 있는 식당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미루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식당에 '얼른' 와서 맛있게 식사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Alone'의 발음이 '얼른'과 비슷해서 동음이의어처럼 작용하도록 한 것이죠.

>> 학과 수업이 대회 참여 혹은 대회 준비에 영향을 주었거나 도움이 된 점이 있을까요?

학과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호텔관광마케팅조사'라는 강의를 같이 듣기 때문에 학교 강의를 통해 이번 대회에 필요한 지식인 마케팅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었어요. 덕분에 탄탄한 지식을 기반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퀄리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이번 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팀들 중에서 우수상까지 거머쥐게 되면서 얻은 느낀 점이 있다면요?

화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만약 이 대회에 혼자 참가했다면 절대 상을 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 4명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고, 덕분에 이렇게 과분하지만 우수상이라는 뿌듯한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저희가 외부 대회에 나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떨리기도 했어요. 이번 대회를 기반으로 저희들끼리 자주 뭉쳐서 또 다른 대회에도 나갈 계획이에요. 꼭 상을 타지 않더라도 그 자체에 의미가 있고, 이러한 경험이 쌓여서 앞으로 저희들의 꿈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멋지게 꿈을 이룬 김송경, 김은선, 위승연, 이인지 네 사람이 함께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를 대표하여 저희 학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민지, 오소영 수습기자>

신한 한국어 대회 수상자 몽골인 소라

Student Power 4

제1회 신한대학교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의정부 캠퍼스 에벤에셀관에서 국제교류원 주최로 열렸다. 대상을 수상한 소라씨를 만나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 안녕하세요! 소라씨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라이고요. 20살이고 몽골에서 왔어요. 신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기간은 약 1년 정도 되었어요.

>> 한국어 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신한대학교 어학당에서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신한대학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려주셨고 추천을 받아 도전하게 되었어요.

>> 한국어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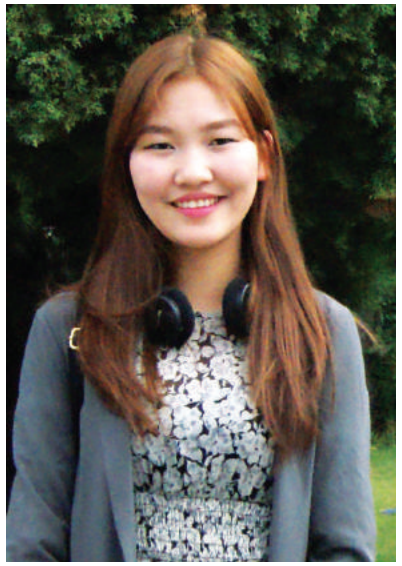
저에게 이 대회 소식을 알려주신 교수님께서 옆에서 구체적인 지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문법, 듣기, 말하기 모든 면에서 한국인처럼 말하는 법이라는 소주제로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평소에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틀리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말라'고 항상 말씀하셔서 부족해도 자신감 있게 말하게 된 거 같아요.

>> 제일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인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 이유가 강세, 호흡, 쉼표를 어디다 둘지 몰라서 나오는 부자연스러움, 어색함이었어요. 다행히도 이런 부분을 교수님께서 많이 알려주셔서 보완할 수 있었어요.

>> 대회 수상 후 어떤 혜택을 받았나요?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서 3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어요. 아, 그리고 상장도 받았어요.



>> 이제는 대회가 아닌 소라씨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네요. 소라씨는 한국에 오신 계기가 있나요?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면서 같이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 저까지 4명 모두 다요. 그 과정에서 문제도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몽골에 남아 대학교를 졸업한 뒤 천천히 한국에 가서 공부하길 원했죠. 그런데 저는 바로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 소라씨는 약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유창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실수하거나 해서 난처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럼요. 정말 많아요. 한 예로는 예전에 아는 몽골인 언니랑 같이 명동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누가 저에게 너 "명동에 뭐 하러 가냐"는 질문에 저의 원래 의도는 명동에 옷을 사기 위해간다고 말하려 했지만, 정작 "명동에 오줌 싸러 간다"라고 대답해 서로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오해를 풀고 한바탕 웃었던 적이 기억나네요. 아, '옷'이라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서로 혼돈을 주었던 경험이었네요.

>> 끝으로 소라씨의 미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국에 산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더 배울 점이 많아요. 한 5년 한국에 더 머무르면서 한국어를 공부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다른 대학에 정식 입학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건 더 훗날의 얘기지만 외국에 나가서 봉사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라씨의 열정과 노력이 눈에 보여 인터뷰하면서도 자극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얻길 바랍니다!

<박미소기자>

신한대학교 공연동아리 예술의 장,
첫 페이지를 열다

제1회 신한대학교 **공연동아리 연합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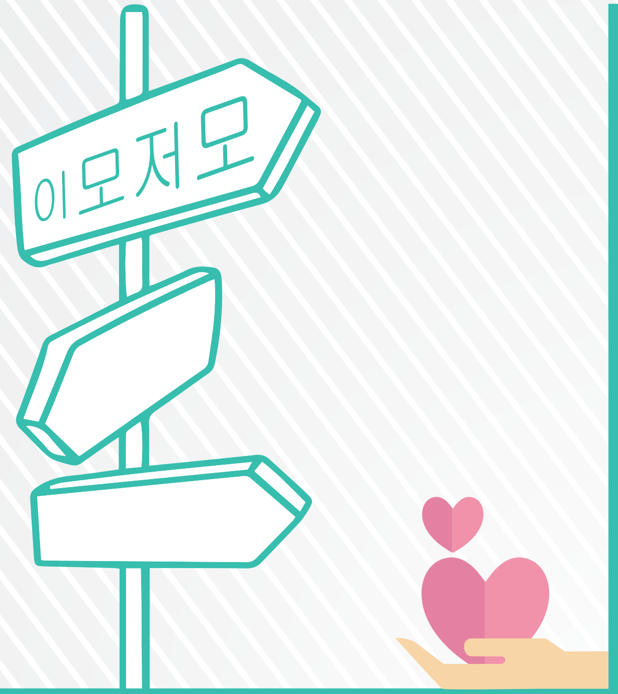
지난 9월 8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신한대학교 공연동아리연합'이 첫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오후 6시 30분부터 약 3시간가량 1,2부로 진행되었다. 신한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주민 등 많은 관객이 모인자리에서 선보여졌으며 그들의 개성과 예술성으로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의 타이틀인 〈BASH〉는 밴드동아리 'BOMB(범)', 힙합동아리 'AKDANG(악당)', 어쿠스틱동아리 '소리패', 댄스동아리 'HEUNG(흥)'으로 구성된 '신한대학교 공연동아리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행에는 댄스동아리 'HEUNG'의 국제어학과 엄건호 학생과 유아교육과 배주연 학생이 맡아 공연의 매끄러운 흐름을 이끌었다. 먼저 밴드동아리 'BOMB(범)'의 〈뱅뱅뱅 외 2곡〉으로 무대의 막이 올랐으며 이후 어쿠스틱동아리 '소리패'의 〈바다 외 2곡〉, 댄스동아리 'HEUNG'의 〈아주 NICE 외 4곡〉, 힙합동아리 'AKDANG'의 〈Hot nigga Remix 외 3곡〉등을 차례로 1부와 2부를 장식했다. 이 공연은 신한대학교가 개교한 이래로 처음 자발적으로 이뤄진 '공연동아리 연합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무대에 오른 학생들은 학업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작사, 작곡, 편곡 등을 해냈을 뿐 아니라 꾸준한 연습으로 공연 내내 손색없는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전공 이외에도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신한인의 모습을 교내와 교외에 톡톡히 알렸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도 서로의 무대에 대한 조언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은영 기자〉

→ 동아리연합 BASH공연

B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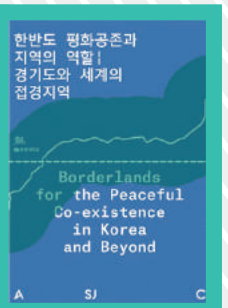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 사회복지학과 2학년 임형준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자살예방 '괜찮니?' 캠페인 벌여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10월 26일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에벤에셀관 앞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기획한 '괜찮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교내 동아리 '로타렉트' 회원들은 친구 및 선후배간에 작은 관심을 실천할 수 있는 '괜찮니? 우체통 캠페인'을 벌여 자살예방노래 '괜찮니, 괜찮아?'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고, 재학생들이 쓴 마음의 엽서를 전달했다. 또 의정부정신건강센터도 이날 행사에 동참해 홍보용품을 나눠주었다.

〈권혜미 기자〉



신한대 주최 2016 국제학술대회, 성황리에 종료

신한대가 경기도와 함께 개최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지역의 역할: 경기도와 세계의 접경지역'이란 주제의 학술대회가 지난 11월 12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렸다.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경기도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주최한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국내외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접경지대인 경기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재조명하고, 동아시아와 세계로 시야를 넓혀 평화와 공존을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각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예지 기자〉

신한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업무협약

신한대학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연구 활성화와 자동차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월 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기술연구, 자동차안전 및 튜닝에 대한 기술연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통사고예방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박은영 기자〉

신한대-(주)하이미디어아카데미 산학협력 협약 체결

신한대학교는 지난 11월 23일 1캠퍼스 본관 회의실에서 컴퓨터교육 전문업체인 (주)하이미디어아카데미와 기술정보 교류, 교육과정 공동개발, 취업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수의 연구 및 교재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현장실습과 채용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취업교육을 통해 100%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민영 수습기자〉

산업디자인전공 학생 졸업 작품 전시회 개최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4학년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 'That's 잇 Make 잇전'이 지난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동숭동 대학로 목금토 갤러리에서 열렸다. 전시회 이름은 학생들이 예비디자이너로서 대학 재학 4년 간 사람과 디자인을 잇는 것에 대한 고민과 탐구 결과를 'That's it! 바로 그거야!', 'I can make it! 내가 해낼 수 있어!'로 표현해 '잇는다는 것(That's 잇)'을 '만들어(Make 잇)' 보여 주기 위해 붙여졌다.

〈변진영 기자〉

(유)대명로지스, 신한대에 장학금 1,300만 원 기증

(유)대명로지스가 신한대학에 장학금 1,300만 원을 기증했다. (유)대명로지스는 11월 25일 신한대학교 제1캠퍼스 본관 3층 세미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김옥란 대표이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협약에 따라 (유)대명로지스는 신한대 재학생들에게 현장실습과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취업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공연예술학과 댄스 팀 'MYSTIC-VONZ' 12월 아시아 선수권대회 결선무대 진출

신한대 공연예술학과 댄스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댄스 팀이 아시아대학댄스선수권대회 결선에 진출했다. 댄스전공 학생 6명으로 구성된 'MYSTIC-VONZ'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아시아 대학댄스 선수권대회(AUDC) 국내 대표선발전을 겸해 열린 제1회 회장배 전국대학힙합댄스대회에서 3위에 입상해 결선무대 진출 자격을 따냈다. 'MYSTIC-VONZ'를 포함해 1~3위 팀의 출전은 대학생 신분의 댄서들이 국가 대표 자격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첫 케이스이다.

〈반지민 기자〉

간호대학 제2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신한대학교 간호대학은 제2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지난 11월 18일 의정부캠퍼스 에벤에셀관 컨벤션홀에서 105명의 예비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2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 간호사들은 이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선서를 마친 간호학생들은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임상실습과 학업을 병행한 뒤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도전하게 된다.

〈오소영 수습기자〉

제112기 KOICA 봉사단 직무교육 수료식

신한대학교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112기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 직무교육 제112기 과정 수료식이 11월 23일 의정부캠퍼스 산학관에서 열렸다. 수료식에 참석한 교육생 49명은 1월 16일부터 7일 간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간호, 한국어교육, 요리, 유아교육 등 16개 직종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이수한 봉사단원들은 12월 초부터 몽골, 르완다, 도미니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으로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박미소 기자〉

중앙도서관 '독도의 날' 기념 전시회 등 개최

중앙도서관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지난 25일 명사초청 특강에 이어 27일 제1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독도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독도 도서 100선 전시, 독도 사진 전시회, 독도 관련 동영상 상영 및 홍보물품 전시 등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개최되었다. 2016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하나인 이번 행사는 우리 땅 독도의 주권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 독도에 대한 사랑을 생활화하고 애국심을 기르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지 수습기자〉

대학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3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진 중앙도서관
이은정 호텔조리전공
김경회 유아교육과
김정훈 전자공학전공
신경환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유은경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윤효숙 임상병리학과
이명호 호텔조리전공
황보상원 공법행정과
김기순 산업디자인전공
김남용 공법행정과
김남중 치기공학과
류재경 치기공학과
박노현 관리운영처
박효철 공간디자인전공
송진희 컴퓨터공학전공
신현정 컴퓨터공학전공
오흥진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유진현 호텔조리전공
윤미숙 치위생학과
윤태빈 유아교육과
이광규 컴퓨터공학전공
이기석 자동차공학과
이대홍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정규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청재 치기공학과
장인봉 공법행정과
장정순 사회복지학과
전현주 국제어학과
조성심 사회복지학과

한수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황재석 에너지환경공학과
황태용 교학팀
강수철 학생지원팀
곽영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김민정 뷰티헬스전공
김선명 에너지환경공학과
김용섭 교목실
박문찬 안경광학전공
박용민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박정우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박주원 유아교육과
박현수 공간디자인전공
배시애 교양학부
서종원 임상병리학과
송기상 대외협력팀
신현곤 에너지환경공학과
오병칠 공간디자인전공
오이균 공법행정과
이금숙 사회복지학과
이기찬 교양학부
이남전 취창업지원센터
이승영 산학협력단
이웅배 뷰티헬스 전공
임민경 간호학과
임승희 사회복지학과
전법주 에너지환경공학과
진선범 시설지원팀
최에스더 뷰티헬스전공
홍수희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고광칠 시설지원팀
김봉건 입학팀
김창희 학생상담센터
서장훈 임상병리학과
송운흥 임상병리
신용칠 임상병리학과
윤효숙 임상병리학과
이대성 정보화지원센터
이보고 국제어학과
정세훈 안경광학전공
조규봉 임상병리학과
최병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최승구 임상병리학과
홍경옥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김문규 중앙도서관
강대원 시설지원팀
강정원 유아교육과
강제이 국제교류3팀
김옥희 에너지환경공학과
김종록 시설지원팀
배영금 국제어학과
우두한 시설지원팀
이강석 시설지원팀
임효진 대외협력팀
장은주 유아교육과
전영주 홍보팀
조혜선 유아교육과
김현숙 수업학적팀
박준수 기획팀
변미현 홍보팀

이동원 학생지원팀
이민희 홍보팀
조상민 시설지원팀
정은정 평생학습중신대학
(유)대명로지스
ONE ASIA FOUNDATION(일본)
수요예배
(주)더조은아카데미
(주)하이미디어 아카데미
글로씨코리아
치기공학과 동문회
(주)신라공업
평생교육원
도서출판희소
정동제일교회
이석재 총동문회
정인숙
고영민 동문
서창범 동문
김호성 동문
송내교회

자르는 선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ㅁ동문 ㅁ재학생 ㅁ학부모 ㅁ법인(기업) ㅁ일반인(비동문) ※ 중복체크 가능			
인적사항	성 명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인적사항	직 장 명		부 서 명	
인적사항			직 위	
인적사항	주 소	(자택)	(TEL)	
인적사항		(직장)	(TEL)	
인적사항	E-mail		휴대전화	
인적사항	우 편 물 수 령 지	ㅁ 자택 ㅁ 직장	기 부 추 천 인	
약정	총 액	금( )원 (₩)		
약정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총( )회 / 월( )원씩		
약정	기 부 금 용 도	ㅁ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약정		ㅁ 지정발전기금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ㅁCMS	CMS(기부자의 동의하에 기부자 계좌에서 자동출금해가는 방식)		
기부방법		결 제 일	ㅁ 일	결제은행 은행
기부방법		결 제 계좌번호		
기부방법		예금주명	ㅁ 기부자명과 동일 ㅁ 기부자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아래내용 작성) 예금주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기부방법	ㅁ무통장 입 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기부방법		입금자명	ㅁ 기부자명과 동일 ㅁ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국제교류원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3 (Fax 3169)
■ 우편 : (480-701)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16. 12 / 189호

편집후기

김민지 편집장

벌써 2016년도 마지막 신한톡톡 189호가 발간되었다. 1년에 총 4권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생각지 못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다. 그래도 그동안 나왔던 신한톡톡과 이번 해의 마지막 신한톡톡이 잘 마무리되어 좋다. 내년에도 맡은 일을 잘 하여 완성도 높은 신한톡톡이 발간되길 바란다.

권혜미 기자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신한톡톡이 발간되었다. 매일 편집에 임하면서 힘들 때가 정말 많았는데, 돌이켜보니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신한톡톡이 남은 기자들과 함께 더욱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박미소 기자

188호를 마무리 짓는 동시에 어느덧 189호도 빠르게 완성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쌀쌀하던 가을도 어느새 차가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되었네요. 날씨는 차갑게 변했지만, 189호 기사를 위해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열정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마음만큼은 따듯할 수 있었던 순간이였습니다.

박은영 기자

취재를 다니면서 매번 교내에 다양한 취재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학업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호에도 재미있는 취재거리를 찾아 기사를 쓸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올 해 마지막 호인 189호를 마치며 내년에도 더 좋은 기사를 쓰고 톡톡히 문제없이 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지민 기자

2016년도의 마지막인 신한톡톡 189호가 발간되었다. 이번 호는 유독 외부 취재가 많아서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다. 이번 호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함께 고생한 기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변진영 기자

2016년의 마무리와 함께 기사를 정리하니 감회가 새롭다.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신한대학교 신문사 기자가 되어 우리 학교 소식을 전하고, 우리 학교 사람들을 만났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앞으로가 기대된다.

홍예지 기자

12월이 다가왔다. 도봉관 앞에 벚꽃이 피어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가을의 단풍이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 신문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꽁꽁 여며야 하는 계절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또 다른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작은 칸을 통해 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뛰어다닌 기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여러 힘든 일이 있겠지만 우리 신문사는 분명 잘 이겨낼 거라 믿는다. 기자들 파이팅!

김민지 수습기자

신한대학교 신문사의 기자로서 내는 두 번째 신한톡톡이라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숙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호의 취재를 통해 금전으로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얻어 많이 배운 것 같고, 다음 호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도 좋은 결과물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수정 수습기자

이번엔 전과는 다르게 직접 취재를 하고 인터뷰와 기사 작성까지 해보니 신한톡톡이 발간되기까지 신문사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내야 하는지 새삼 느껴졌다. 그리고 나 자신도 처음의 어리둥절하던 모습에 비해 한 발짝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직까지는 많이 미숙하지만 앞으로는 더 진중한 모습으로 임해야겠다.

오소영 수습기자

올해의 마지막이자 수습기자로 3번째 참여한 신한톡톡이 나오게 되었다. 그동안 기사쓰는 일이 익숙해졌지만 쉬워지진 않은 것 같다. 3번째임에도 미숙한 부분이 많아 아쉬웠지만, 올해를 발판삼아 다음 호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이민영 수습기자

학기 초에 신문사에 들어왔었지만 어느새 한해가 다 저물어간다. 이번 189호에 참여하면서 작은 어려움도 느꼈지만 동기 기자들과 함께 의지하며 극복해 나갔다. 내년을 기약하며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다음호는 신한인의 다재다능한 재능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쎈!

창조와 융합교육 | 글로벌 현장교육 | 신한(信韓)류 미래교육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인재양성을 창학이념으로 출발한 신한대학교!
지난 반세기 동안 기술인재 양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 센세이셔널한 신한대학교의 비전을 펼쳐 나갑니다!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